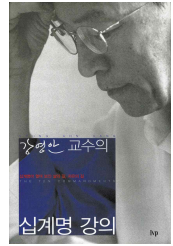




- 십계명이 열어 보인 삶의 길, 자유의 길 -

- **강연** _ 강영안 교수(서강대 철학과, 저자)
 - **일시** _ 2009년 12월 16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_ 명동 청어람 5실
 - **순서** _ 사회 : 양희송 기획자(청어람아카데미)
- 7:40-8:20 강연
8:20-8:40 질의응답
8:40-9:00 사인회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 차례



강의를 열며

십계명 서론

1. 십계명의 성격
2. 언약과 십계명의 형식
3. 아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1계명

1. “열 마디의 말”
2.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3. 왜 우상 숭배를 금하는가?

2계명

1.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 경우
2.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통해 섬길 수 없는가?
3.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만들어 낸 하나님

3계명

1. 이름의 의미
2. 하나님의 이름
3.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
4. 예수의 이름으로
5. 3계명이 담고 있는 적극적 의미

4계명

1. 안식일과 관련된 질문 세 가지
2. 안식일의 왜곡
3. 안식의 의미
4. 쉬어라. 쉬되 예배를 드리면서 쉬고, 남과 더불어 쉬어라

5계명

1. 네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2. 권위의 소재
3.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의 훈육, 훈계, 징계
4. 권위의 위기와 정당한 권위
5. 성경은 전통적 권위만을 지지하는가?
6. 약속 있는 계명

6계명

1.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2. 왜 살인할 수 없는가?
3. ‘죽인다’는 것
4. 삶을 가꿀 책임

7계명

1. 구약시대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2. 결혼과 성
3. 남자와 여자
4. 몸을 쳐 죽이는 연습

8계명

1. 사람 도둑에 관한 계명
2. 부와 재산
3. 왜 부를 경계하는가?
4.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9계명

1.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
2. 여러 가지 거짓말들
3.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
4. 진실해야 할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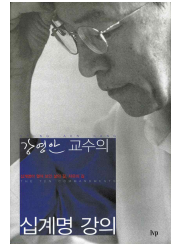
10계명

1. 무엇이 탐내는 것인가?
2. 어떤 욕망이라도 버려야 하는가?
3. 욕구와 욕망, 이성과 정욕
4. 누가 이웃인가?

강의를 닫으며

감사의 글
주

강의를 열며



강영안 교수 | 서강대 철학과, 한국연구재단 역사철학단장, 기윤실 이사

* 본 내용은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에 수록된 「강의를 열며」 부분을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여러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증세와 현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세들은 서로 연관될 수도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우리 사회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종교 다원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기본적인 방향과 교회 사역자들의 목회 방향이 제자도의 삶과 거리가 있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 계명씩 살펴보기 전에, 이 증세와 현상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1. 반기독교 정서의 출현

기독교에 반대하는 정서가 최근 우리 사회 속에 서서히, 그러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언론 매체가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무신론의 전사(戰士)로 자처하는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김영사)은 출간된 지 2주 만에 5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주요 신문들뿐 아니라 심지어 방송에서도 크게 다뤄 준 덕을 보았습니다. 젊은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한국의 지식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독교, 특히 한국 개신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늘 거부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문화도 저항 없이 복음을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기존의 사고와 행동 양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복음이 곧장 수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기독교가 당연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그곳에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최근 한국 사회에 표출되는 반기독교 정서는 선교 초기에 기독교에 보일 수 있는 반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는 천주교를 포함하면 이미 200년이 넘었고, 개신교만 해도 100년이 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와 접촉했고,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기독교 세력이 일어나고, 대중매체를 통해 기독교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국내에서 최근 나타나기 시작한 반기독교 정서와 ‘안티 기독교 운동’은 크게 보면-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표현을 빌리자면-‘근대성의 문화’(the culture of modernity)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미시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내의 기독교 비판은 첫 번째로, 서양의 이른바 ‘근대성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 비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서양의 기독교 비판 중에도 특별히 근대 무신론의 출현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비드 흄(David Hume)을 따르는 노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됨을 뒷받침하기엔 ‘경험적 증거’가 너무 희박하다는 입장입니다. 흄이 드러내 놓고 무신론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삶에 신의 존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믿음의 윤리’(the ethics of belief)란 말을 만들어 낸 윌리엄 클리포드(William Clifford)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Why I am not a Christian, 사회평론)로 유명한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모두 경험적 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흄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의 무신론을 저는 ‘증거론적 무신론’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이와는 달리, 마르크스(Karl Marx), 니체(Friedrich Nietzsche),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혐의론적 무신론’이라 부를 수 있는 유형의 무신론을 내세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종의 환상이며 착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착각과 환상을 마치 참인 것으로 주장하는 데는 모종의 숨은 동기가 있다고, 기독교에 대해 혐의를 품는 무신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거나(마르크스), 집단 신경증 증상으로 보거나(프로이트), 힘 있고 뛰어난 소수에 대한 힘없는 다수의 반감의 소산(니체)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학을 유일한 진리의 시금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증거론적 무신론자’이기 쉽고, 현대의 예술·문화·사회과학적인 논의에 깊이 훈련된 사람이면 ‘혐의론적 무신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이 참된 ‘경험적 증거’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을 벗어나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경험적 증거’가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종교란 인류의 문화 발전 단계에 따라 권력의 도구로 생산된 것이라 생각하여, 종교적 신앙이 초월적이고 비판적이며 개방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앙의 의미를 매우 좁은 범위 안에 가둬 넣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 두 유형의 무신론을 하나로 결합하여, 이제는 무신론을 시민운동의 차원으로까지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신론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의 추종자들에게 젓과 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내의 기독교 비판은 두 번째로, 한국 사회 특수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첫째, 80년대 후반 시민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모범으로 삼아 90년대 이후 반기독교 운동도 시민운동의 한 형태로 조직화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반기독교 운동의 전달과 확산 매체로 인터넷이 사용됩니다. 매체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반기독교 정서가 거친 언어로 여과 없이 표출됩니다. 셋째, 80년대 중반 이후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부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형제 복지원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교회 집사이거나 장로였습니다. 근래에는 목회 세습,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의 지나치게 부유한 생활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독교

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친미, 보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드높였고 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드러내 놓고 할 정도로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보여 왔습니다. 몇 해 전 발생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도 안티 기독교 운동에 기름을 부은 썸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열거할 일이 많지만, 앞의 두 가지가 반기독교 운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면 나머지 두 가지는 반기독교 운동의 빌미와 내용을 제공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언론 매체, 그중에서도 방송 매체를 통한 기독교 비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반기독교 운동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계기는 단순히 이론에 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컨대 흠에 앞서 경험론적 지식론을 수립한 존 로크(John Locke)를 보면 경험적 증거의 요구는 이론적 관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실천적 고려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으로 사회는 분열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고 나라와 나라 간에는 끔찍한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크는 관용을 내세우고 이른바 '민음의 윤리', 곧 경험적 증거가 확실하면 할수록 민음의 강도를 높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로크 자신은 기독교 신앙인이었지만 감각적 경험으로 확증할 수 없는 분야(예컨대 정치, 종교, 예술)에서는 싸움을 멈추고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톨레랑스'(tolérance)라는 용어로 잘 알려진 관용의 문제를 거론한 철학자가 바로 로크였습니다. 흠은 로크의 경험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 결과 흠은 기독교 신앙이 기적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기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논증합니다. 흠은 또한 종교가 원시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기독교 비판도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는 기독교, 현세적 삶을 무시하는 기독교와 관련 있습니다.

기독교 비판은 이론에 대한 회의나 의심보다는 잘못된 실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매(복음이 가르친 삶의 실천)가 없기 때문에 나무뿌리(가르침)조차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국내의 반기독교 정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함이 없고, 삶의 열매가 없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신론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사 세속적 가치를 좇아 산다 해도, 그들 가운데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참된 것을 가졌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 주기를 바라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이런 또는 저런 방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실천적 삶(orthopraxis, 正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실천은 삶 속에서 맺는 복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agathosune)과 의로움(dikaiosune)과 진실함(aletheia)에 있다고 에베소서 5장은 말합니다. 고통받는 타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거짓이나 감춤 없이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열매는 맺고 싶다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뿌려져야 하고,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나무가 제대로 자라야 합니다. 적합한 수분과 영양과 공기와 햇빛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교육이 있고, 양육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무

관심할 뿐 아니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집단으로 각인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십계명 1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 아니 하나님을 곁에 두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무신론에 관해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무신론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적 무신론(theoretical atheism)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실제적(현실적) 무신론'(practical atheism)입니다. 현실적 무신론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일컬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진 사상과 삶에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표지(정의와 평화와 인애)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가장 큰 위기의 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종교 갈등 문제

기독교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종교 갈등의 가능성입니다. 곧장 말하자면 불교계와의 갈등 가능성입니다. 대체로 인정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고 왕래하면서도 막상 공식적으로 타종교와의 문제가 거론될 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이면서도 종교 간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은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한국 종교인들의 관용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도적 종교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무교 등이 존재하지만, 지난 세기 이후 지배적 종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인이나 유럽인뿐 아니라 한국인도 종교와 관련해서는, 피터 버거(Peter Berger)의 말을 빌리자면 '선택의 명령'(the heretical imperative)과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는 필연이나 강제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hairesis, option)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눈에 띄는 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첫째,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며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주류라는 의식의 표출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낳습니다. 이제는 활동의 폭을 넓혀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보겠다는 표현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움직임은 기독교와 맞서 가장 큰 세력임을 자처하는 불교계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 '성시화(聖市化) 운동에 참여하여 서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불교계에서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둘째, 불교계의 움직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불자들은 기독교 신자들만큼 멤버십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다. 매주, 또는 매일 교회를 찾는 신자들과는 달리 불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절에 가거나, 불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불교계는 이런 저런 심기의 불편함을 자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계 안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불자들에게는 불자임을 의식하고 종교 차별에 대해 저항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지고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 뿐 아니라 불교계나 기독교계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러 종교가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신자와 불자가 각각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종교다원주의가 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할 경우 종교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종교다원주의의 수용을 해결안으로 보는 것은, 갈등의 소지를 기독교에 내재되어 있는 배타주의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배타주의를 벗어나 다원주의 입장을 취해야 하고, 다원주의 입장을 취할 때 종교 간 평화가 보장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해결책인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다원주의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원주의’(pluralism)란 말을 봅시다. 다원주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또는 ‘여럿’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복수주의’(many-ism)입니다. 분야에 따라 인식론적 다원주의, 윤리적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미적 다원주의, 사회적 다원주의 등 여러 가지 다원주의의 형태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원주의의 공통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 ‘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지식 체계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있다고 보면 인식론적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고, 윤리 체계도 하나가 아닌 여럿이 있다고 보면 윤리적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구원의 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다원주의는 있는 그대로를 보느냐, 아니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술적(descriptive) 의미의 다원주의와 규범적(prescriptive) 의미의 다원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술적 다원주의란 현실 상황에 여러 종교, 여러 인식 체계, 여러 윤리 규범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족 형성 방식에서 어디에는 일부일처제가, 또 어디에는 일부다처제가 있을 경우, 주어진 현실이 그렇다고 서술한다는 의미에서 서술적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가족 형성 방식은 일부일처제보다 일부다처제, 또는 다부일처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면 규범적 의미가 되므로 규범적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종교도 하나가 아니라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서술할 뿐이라면, 서술적 의미의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여럿 있는 것이 좋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규범적 의미의 다원주의가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다원주의를 말하는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종교다원주의는 규범적 의미에 한정하고,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 곧 우리는 현재 다양한 종교가 주어진 상황에 살고 있다는 의미의 다원주의는 차라리 ‘종교 다원적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경우, 서술적 의미의 다원주의의 입장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종교가 여럿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다원주의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관련해서 규범적으로 그와 같은 다원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종교 다원적 상황에서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으로 제안되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하신 말씀을 거부해야 합니다. 다원주의가 옳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 준 여러 통로 중 하나일 뿐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한 대속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을 삭제하고도 종교로 남아 타종교와 공동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제가 갖는 난점 가운데 난점입니다.

물론 저는 계시의 역사적 제약성이라든지, 하나님은 어느 종교에나 계신다든지, 인간 이해의 유한성이라든지 하는, 근대 철학과 더불어 등장한 생각들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오류 가능성이나 역사상 보인 교회의 배타성과 억압성 등도 인정합니다. 서구 기독교를 포함하여 기독교가 때로는 타문화를 배타적이고 억압적으로 대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역사상 기독교는 칭찬받을 일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관점과 신앙이 상대적임을 인정하고 타종교와의 대화와 공존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마도 종교 간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스 쿡(Hans Küng)은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과연 한 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믿음을 제거하고도 평화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갈등이라는 것이 심하게 정치화된 종교에 의해 유발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화된 종교의 폭력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가르침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교 중에서 가장 포용력 있는 종교인 힌두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40년 간 선교사로 활동한 레슬리 뉴비긴의 말은, 이런 상황에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합니다.

다원주의와 포용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보통 인류의 하나 됨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이다. 특히 핵전쟁과 환경 파괴의 위협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물론 우리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게 공감한다고 해서 그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실마리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종교가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중략) 우리는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만큼 갈 길을 알아야 한다. 모든 길이 동일한 산꼭대기로 통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절벽으로 향하는 길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발견했다. 이 지식을 그저 우리만을 위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할 수 없다. 인류 가족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감히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계시되느라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고 또 그 화해의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만큼, 우리도 그 길과 그 목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동료 순례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다.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복음」 pp. 338-339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교 신자와 무교 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즉 종교 다원적 상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지는 것입니다. 타종교인들의 신앙과 종교 행위가 그들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로 지향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듯이, 과연 기독교와 불교, 유교와 무교가 각각 다른 방식과 다른 길을 통해 동일한 목적에 도달하는 종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종교들이 모두 구원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추구한

다 해도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컨대 유교가 지향하는 구원은 '내성외왕'(內聖外王),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논어」에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선불교 용어로 말해 '견성성불'(見性成佛), 즉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은 다르나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간다는 명분 아래, 각각의 종교가 다른 종교와 상충되는 주장에 대해 침묵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느 종교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각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증언하되, 증언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 곧 상식(common sense)에 부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바람직한 태도로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태도는 타종교에 대한 존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부드럽고 신사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곧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집회를 방해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정진홍 교수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서울 근교 절에 들렀는데 밤이 되자 주지 스님이 그날 밤 절에 머물렀다가 가시라고 간곡하게 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찬송가 소리를 들려서 나가 보니 대여섯 명의 남녀가 절 마당에 서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라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모든 것을 규모 있고, 평화롭게 상식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 곧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화평(평화)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logon peri tes en humin elpidos)를 묻는 자에게 대답(apologia)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는 말씀처럼, 타종교인이 원한다면 우리의 믿는 근거, 믿는 이유(logos)를 증거하고 설명하고 토론할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불자든 그리스도인이든 먼저 윤리적으로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자신이 소망을 둔 바에 대해 근거와 이유를 묻는다면 그에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전제하는 인간 존재의 역사성과 유한성 때문에 상호간의 증거와 논증, 토론이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의존하는 경전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지만 참된 것에 대한 갈망, 선한 것에 대한 갈망,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갈망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자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토론할 공통의 기반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한국 기독교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반지성주의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줄곧 “무조건 믿어라”라는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무조건 믿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었으면 힘써 알아야지!” 하는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Credo ut intelligam)에 이어 안셀무스(Anselmus)가 덧붙여 하는 말인 ‘알고자 하는 신앙,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이 이제는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얕이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입니다. 구원

은 죄로 왜곡된 삶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 삶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서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Heidelberg Katechismus)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부분을 감사로 출발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감사(eucharistia)하는 마음으로 회복한다면, 우리 삶에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곧 은혜(charis)로 살아가는 성만찬적, 감사의 삶(Eucharistic life)이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성 회복,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해야 할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일입니다. 종교 다원적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참됨을 증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빛의 열매(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를 맺음으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다원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여러 종교가 함께 있는 종교 다원적 상황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둘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실천하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셋째 자신이 소망을 두고 있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하되, 넷째 이 모든 증거와 설득을 온유와 존경심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을 갖되 시민적 교양과 상식을 가지고 타인과 타종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 타인을 용납하고 관용을 보이되 그럼에도 확신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굳이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A Christian of conviction with civility, and a Christian of civility with conviction.”(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예의를 갖추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 확신을 갖되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예의가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종교 다원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신앙, 목회, 교회의 근본 방향 설정 문제

그런데 종교 다원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적 교양과 시민적 교양의 부족보다 좀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의 신앙과 목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근본 이해와 방향 설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도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왜 믿는가?” 이 질문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보통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의미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물질과 건강의 복을 누리며, 자녀들이 잘되는 복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정도일 것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하고, 구역 모임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본 설정이 종교적 의무와 이승과 저승에서 누릴 ‘복락’(福樂)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신앙 이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자도(discipleship) 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자도 정신의 결여는 믿음에 수반되는 고난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둘째, 신앙의 목적이나 방식면에서는 한국 불교 신자들이 믿는 방식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방식에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다를 뿐,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형태나 그와 함께 수반되는 복락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바랄 수 있는 빛의 열매를 이런 방식의 신앙 이해에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목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설문 조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지만, 오랜 관찰을 바탕으로 보자면 목회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어, 교회에서 해야 할 의무(예배 참석, 헌금, 봉사)를 다하게 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새 신자로 만들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며, 최종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경공부하고, 심방하고,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교회 재정에 충분히 기여하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업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을 목회자는 당연히 훌륭한 신자로 여기고 좋아합니다. 이런 신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래서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는 성공한 것이 되고, 그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가 됩니다.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목회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다수 신학생들도 이런 목회자가 되길 꿈꾸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까닭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12절)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katartizein)은 정확하게는 '준비시킨다', '구비(具備)시킨다'는 뜻입니다. 성도로서 섬김(diakonia)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어 '온전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세운 목적, 곧 목회의 목적은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인간이란 빛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을 단순히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어두움이던'(엡 5:8)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존재 변환되도록 돕고, 존재가 변환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각 영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한다면 교회에서, 세대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구비 목회는 세상으로 그리스도인을 무장시켜 보내고, 상처 받고 돌아온 이들을 다시 치유해서 세상으로 내보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천하게 하는 목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회론과 현재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교회의 실제 모습은 같은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목회자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보는가? 노회는 무엇이며, 총회는 무엇이며, 한기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잔'이라고 하지만 현실 교회는 한국 전통 종교인 불교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현대 소비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불자들이 절에 가듯이 교인들은 주일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갑니다. 불자들이 불공드리듯, 교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스님들이 절을 지키듯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에서는 스님들이 중심이 되고, 불자들은 아무리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봉사해도 늘 수혜자이며 수동적 입장에 있듯이, 교인들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라고 하듯이, 목사가 싫으면 교인이 떠나야 한다는 말도 공공연히 존재합니다. 천 년을 훨씬 넘게 행해 온 종교적 습관을, 뿌리도 다르고 정신도 다른 기독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토착화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 사회의 모습은 서울과 지방, 동네 교회와 대형 교회의 구별에 따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동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마치 동네 슈퍼마켓에서 시장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마치 유명 백화

점을 드나들면서 쇼핑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교인은 욕구 충족을 찾아 해매는 소비자가 되고, 목회자는 고객 만족을 위해 애쓰는 연예인처럼 변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교회는 소비 사회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시급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적인 욕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벧전 2:9-12, 새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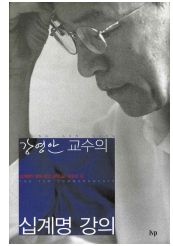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선한 행실을 한다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산 위에 우뚝 선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문제는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 버린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성과, 개체교회를 벗어난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로서 세상의 고난과 기쁨을 함께 짊어진 참다운 윤리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을 공부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까닭은 십계명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을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소개

1952년 경남 사천 출생. 고려신학대학(현 고신대학교)에서 신학을 몇 년 공부하다가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네덜란드어와 철학을 공부하였다. 벨기에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 루뱅 대학교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다시 학부 과정부터 박사학위 과정까지 철학을 공부하였다. 네덜란드 레이든 국립대학 철학부 전임강사, 계명대 철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최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역사철학단장을 맡고 있다. 미국 칼빈 칼리지 철학과 초빙 정교수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와 한국칸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두레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김포 주님의보배교회를 돕고 있다.

저서로는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강교수의 철학 이야기」(이상 IVP), 「주체는 죽었는가」, 「자연과 자유 사이」(이상 문예출판사), 「도덕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이상 소나무),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공리), 「타인의 얼굴,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자유」(서강대학교출판부) 등 다수가 있다.

출판리뷰



편집자 후기

옥명호 편집장 | IVP

“3천 년 전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계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인가?”
 “십계명 가운데 ‘남종’ ‘여종’ 등을 언급한 내용은 현대 문명 사회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은가?”
 “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 케케묵은 구식 조문이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나 물음이 나올 법합니다. 온갖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이 공존하며 심지어 ‘내게 좋은 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진 이 시대에, “~하지 말라/~하라”고 절대적 명령조에 가까운 계명을 불러내다니요.

그런데 저지는 단순히 오래된 것이라 하여 케케묵고 무용지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그 오래된 계명이 오늘날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고 오염된 일상과 공동체를 바꾸어 갈 수 있는지, 주도면밀하고 사려 깊은 철학자의 눈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보여 줍니다. 그의 해석과 성찰은 성서 본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땅의 삶과 문화를 보듬어 안음으로써 그 풀이에 담긴 적실성과 통찰력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은 배타적 험박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때 비로소 자본(돈)과 권력과 성공/명예가 절대 가치화한 이 세상에서 소외되어 가는 인간의 가치가 올바르게 나타나고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4계명도 고대 유대의 문화이자 관습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계명은 안식, 곧 ‘쉼’의 가치가 인류 공동체 전체에 중요한 것이며, 쉼을 누리되 공동체 전체에 고루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계명의 본질은 사회 정의,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편집자에게는 이 책의 갈피마다 (일상적 사고의 전환을 넘어) 현재적 삶의 변혁을 촉구하는 울림이 수시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 서평

전성민 교수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이 책은 십계명이 현대 사회, 특히 반기독교 정서, 종교적 갈등, 신앙과 목회의 방향 상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개신교에 실제적인 도전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쓰였다. 저자는 말한다. “문제는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 버린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성과, 개체교회를 벗어난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로서 세상의 고난과 기쁨을 함께 짊어진 참다운 윤리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을 공부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까닭은 십계명이야말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땅을 살 때 걸어가야 할 길을 잘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설명은 첫 인상만큼 단순하고 자명한 것이 아니다. 바울서신들조차 “1,900여 년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 배달된 우편물”(리처드 헤이스, 「신약의 윤리적 비전」, IVP)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오래되고 낡은 문화 속에 주어진 십계명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땅을 살 때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십계명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며, “이 땅”(즉, 지금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세계)이 아니라 광야와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래되고 다른 공간에 주어진 “율법”이 어떻게 지금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 줄 수 있을까.

물론 십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지고한 명령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가 궁극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에 이르면 더 이상 십계명을 ‘글자 그대로’ 고집할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는 해석을 통해야만 십계명의 영원한 타당성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십계명의 역사적 독특성과 문자적 적용의 어려움은 그 계명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정경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 능숙하게 다루어 냈다. 더욱이 이 책의 탁월함은 저자의 해석이 본문의 의미를 원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면밀히 살핀 석의(釋義, exegesis)에 근거한다는 데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저자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한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부름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서 정의의 문제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바른 권위의 문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에 대한 부름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관계와 몸의 문제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노동의 문제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존재의 윤리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다루는 저자의 빼어난 논의를 통해, 독자들은 십계명에 씨앗처럼 담겨 있으며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한 깊고 넓은 깨달음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cycled Paper

본 자료는 재생종이(종질만화지)를 사용했습니다



www.trusti.kr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 전화_02-794-6200 이메일_trusti@trusti.kr

1987년 시작된 기운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www.bluelog.kr 서울시 중구 남산동2가 19-8 / 전화_02-319-5600 / 이메일_bluelog@bluelog.kr

청어람아카데미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인재발전소의 역할을 위해 2005년부터 출발하여 인문학, 문화예술, 정치 사회, 신학 등의 분야의 대중강좌와 세미나, 연수, Action Group 101 등의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ivp.co.kr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18 / 전화_02-337-2257 이메일_ivp@ivp.co.kr

IVP는 한국기독교학생회(IVF)에 속한 기독교 출판사로서,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책을 탁월한 품질로 생산하고 보급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는 출판을 통해 대학과 교회와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삶과 신앙이 통합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앞당겨 실현하는 일을 동참하도록 돕고 있습니다.